



祝 辭



전력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영민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력기술인으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전력기술 인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처럼 뜻 깊은 날에 축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다른 의원들과 함께 중국에 갈일이 있었는데 그 곳에 가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력산업은 그 가격과 품질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경쟁력이야말로 바로 한국산업을 지키고 있는 핵심이다” 라는 것을 중국에 가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중국의 모 자동차회사의 공장장에게, 동일 차종을 한국의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것과 중국 북경에서 생산하는 경우, 자동차의 생산원가를 물어보았더니 중국의 인건비는 한국의 7분의1 정도밖에 안되지만 중국의 총 생산원가는 한국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전력공급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가를 새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력산업이 국가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저렴한 전기요금 체계와 우수한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여기에 계신 전력기술인들이 산업현장의 최 일선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유지관리업무 등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대학에서 전기공학과의 사라지고 우수 한 인재는 전기공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전력기술인들의 지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저는 앞으로 우리사회는 전력기술인들처럼 전문가가 대접받는 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전력 산업에 계신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미력하나마 전력기술인들의 권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특급기술자” 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전기·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름대로 많은 역할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80만 전력기술인, 여러분들은 항상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전력 산업 현장에서 깨끗하게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축사를 갈음 할까 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희평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표창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2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의원 노영민